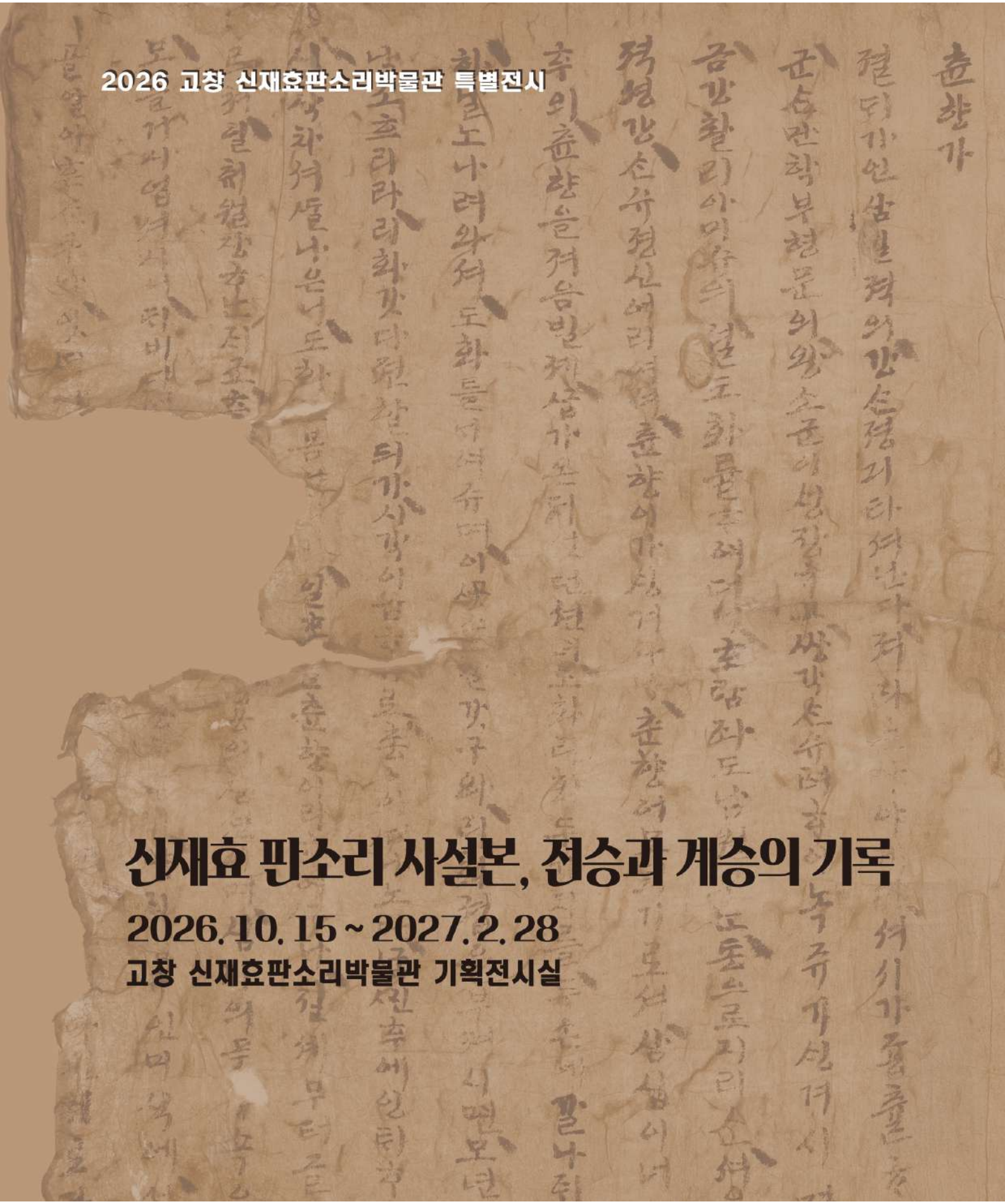
고창 신재효판소리박물관 특별전시

신재효 판소리 사설본, 전승과 계승의 기록

2026. 10. 15. ~ 2027. 2. 28.

고창 신재효판소리박물관 기획전시실



2026 고창 신재효판소리박물관 특별전시

신재효 판소리 사설본, 전승과 계승의 기록

2026. 10. 15 ~ 2027. 2. 28

고창 신재효판소리박물관 기획전시실



청계본 <춘향가 동창(春香歌 童唱)>

판소리의 뿌리, 미래를 비추는 빛, 신재효 판소리 사설본

동리 신재효(申在孝, 1812~1884) 선생의 집대성 아래 피어난 판소리 사설본은 판소리를 들려주는 소리에서 '읽는 문학'이자 '기록된 예술'로 승화시킨 위대한 문화유산입니다.

신씨가장본부터 성두본, 청계본, 와촌본, 신오위장본, 새터본, 김삼불본에 이르기까지 시대를 지나며 수많은 이들의 손을 거쳐 필사되고 전해져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설은 신재효의 원형을 충실히 지켜내는 '전승(傳承)'의 길을 걸어 왔습니다. 동시에 시대의 사회 변화와 필사자의 시선에 따라 문구가 다듬어지고 새로운 이야기가 더해지면서 '계승(繼承)'의 역사 또한 이어왔습니다.

고창 신재효판소리박물관이 발간한 영인본과 교주본 역시 이 흐름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원형의 모습을 고스란히 담아낸 영인본과 현대적 해석과 주석을 더해 이해의 폭을 넓힌 교주본은 오늘날 우리가 사설본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고 이어가는 또 하나의 전승이자 계승의 결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소중한 사설본을 온전히 마주할 수 있는 것은 오랜 세월의 풍파 속에서도 이를 지켜온 문중과 지역 주민, 그리고 소장자들의 숭고한 보존 노력 덕분입니다. 귀중한 문화유산을 기꺼이 나누어 주신 기증 · 기탁자분들의 높은 뜻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손때 묻은 사설본의 한 줄 한 줄에는 시대를 건너온 소리와 이야기가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과거와 현재가 어떻게 호흡하는지 살피고, 미래에 전해야 할 가치를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고창 신재효판소리박물관은 이 위대한 문화유산을 온전히 보존하고 깊이 있게 연구하며, 그 가치를 다음 세대와 세계로 이어가는 든든한 가교가 되겠습니다.

2026. 10.

고창군수 심덕섭

가문이 품어 온 신재효 판소리 사설본의 원형, 『신씨가장본(申氏家藏本)』

신씨가장본은 읍내본으로도 불리며 신재효 후손이 1904년경 원본을 필사한 것으로, 동리 신재효 선생의 직계 가문에 대대로 소장 · 전승되어 온 판소리 사설본입니다.

신재효 사설의 정통성과 원형을 간직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기준본(基準本)입니다. 신재효의 친필 혹은 집안에서 직접 다듬어진 사설의 원형을 가장 충실하게 유지하고 있어, 타 이본들의 계보적 계통과 정당성을 검증하는 절대적인 기준본 역할을 합니다.

정교한 사설 배치는 물론 신재효 가문의 역사적 숨결이 그대로 반영된 유산이며, 구비문학에 머물던 판소리를 서사적 완결성을 갖춘 고전 문학의 반열로 올려놓았습니다.

신씨가장본은 국문본으로 5종 5책이 전하고 있습니다. 판소리 여섯 바탕 중에서 심청가, 퇴별가, 박타령, 적벽가 4책이 전하고 있으며, 단가 · 가사집(성조가, 어부사, 허두가) 1책이 전합니다. 신씨가장본에 춘향가와 변강쇠가는 전하지 않습니다.

신씨가장본 5책은 필체가 동일하여 여러 사람이 아닌 한 사람이 필사한 것으로 보이며, <심청가> 표지에 갑진(甲辰, 1904년)으로 기록되어 있어 그 제작 시기를 알 수 있습니다. 나머지의 책들도 편제가 모두 동일하여 1904년을 전후하여 필사되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신씨가장본을 '읍내본'이라고도 부르는 이유는 이 판본을 소유한 신씨 가문이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에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신재효 판소리 사설본『신씨가장본』(5종 5책) 조선 후기 | 필사본 | 필사자 미상(신재효 가문 전승본)



신씨가장본 <퇴별가>



신씨가장본 <심청가>



신재효 판소리 사설본 『성두본』(5종 8책) 조선 후기~근대 | 필사본 | 필사자 유종석



성두본(A) <적벽가>



성두본(B) <적벽가>

향촌 지식인의 손끝으로 잇다, 『성두본(星斗本)』

성두본은 사헌부 감찰과 진해 현감을 지낸 고창의 지식인 유종석(柳寵錫, 1848~1931)이 고창읍 성두리에 살면서 신재효 사설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여 직접 필사한 사설본입니다.

성두본은 다시 국문본 A형과 국한문본 B형 두 계열로 나뉩니다. 1898년부터 1904년을 전후하여 성두본 A형 3책을 필사하였고, 이후 1907년부터 1918년 사이 성두본 B형 5책을 다시 필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한글(국문본, A형)로 작성된 책들을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다보니 여러 사람이 빌려가서 보게 되었고, 책이 많이 남게 되어 다시 한글과 한자를 혼용하여 국한문본(B형)을 필사하였다고 합니다.

성두본은 판소리 여섯 바탕 중에서 춘향가(A형 · B형), 박가라(A형 · B형), 적벽가(A형 · B형), 토별가(B형), 변강쇠가(B형) 5종 8책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성두본에 심청가는 전하지 않습니다.

국문본(A형)은 3책으로 <춘향가(1898년)>, <박가라(1903년)>, <적벽가(1904년)>가 있으며, 국한문본(B형)은 5책으로 <춘향가(1907년)>, <토별가(1907년)>, <박흥보가(1918년)>, <적벽가(1918년경)>, <변강쇠가(1918년경)>가 있습니다.

이 중 성두본 A형 <춘향가>는 순한글본이며 책표지에 戊戌(무술, 1898년)로 기록되어 있어 신재효 판소리 사설본 중 가장 이른 시기에 제작되었음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 또한 <변경쇠가>는 청계본과 와촌본에 비해 결말을 다 갖춘 완본이기도 합니다.

향촌 사회로의 확산과 민중적 수용,
『청계본(淸溪本)』·『와촌본(瓦村本)』

신재효의 판소리 사설본은 가문 내에만 머물지 않고, 주변 향촌 지식인과 지역 민들에게 전파되었습니다. 필사본의 형태로 옮겨 써지고 유통되는 과정에서 창자(唱者)의 실창 현장감과 지역적 표기 특성이 결합하면서 이본들이 형성되었습니다.

청계본은 2020년 9월에 판소리 연구자인 김종철 교수의 소장자 추적으로 발굴된 신재효 판소리 사설본 입니다. 고창군 고수면 평지리 청계동에서 1906년(丙午)부터 1915년(乙卯)까지 박정림(朴桐林, 1864~1932)에 의해 11책이 필사되었고, 1930년(庚午) 그의 손자 박홍균(朴供均)에 의해서 <춘향전 남창(1930년)> 1책이 필사되었습니다.

청계본은 판소리 여섯바탕인 춘향가(3종),심청가(2종),토별가,박타령,적벽가, 변강쇠가 전질과 단가인 허두가, 성조가, 오섬가를 포함한 9종 12책이 전하고 있습니다.

청계본 <춘향가> 3종 중 <춘향가 동창(春香歌 童唱)>은 국내 유일본으로 신재효가 춘향가를 남창, 여창, 동창으로 분화하였다는 실증적 근거이기도 합니다.

와촌본은 고창군 고수면 와촌리(瓦村里) 덕동(일명 성산동)에서 나온 사설본으로 '덕동본' 이라고 불리기도 하며 정재술에 의해 필사되었다고 합니다.
2종 2책의 한글본으로 <박흥부전(朴興富傳)>은 1914년(甲寅)에, <변강쇠전>은 1915년(乙卯)에 1년의 편차를 두고 있습니다. 필체가 같아서 한 사람에 의해 필사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와촌본은 신씨가장본에 비해서 지역 방언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어휘에 있어서도 필사자의 취향에 따라 바꾼 것이 상당수에 이르고, 텍스트의 순서도 바뀐 경우도 있습니다.



신재효 판소리 사설본『청계본』(9종 12책) 조선 후기~근대 | 필사본 | 필사자 박정림, 박홍균



신재효 판소리 사설본『와촌본』(2종 2책) 근대 | 필사본 | 필사자 정재술



청계본 <춘향가 남창>



가람 이병기의 신오위장본집 총 6권(복제품)



새터 강한영의 신재효 판소리 사설 새터본 친필원고

국문학적 발굴과 근대적 연구의 기틀, 『신오위장본』·『새터본』·『김삼불본』

근대 이행기, 흩어져 있던 판소리 사설본들은 국문학자들에 의해 학술적 연구 대상으로 포착되었습니다. 전통적인 필사 · 전승 단계에서 벗어나 이본을 수집하고 대조하며 교주(校註)하는 근대적 학술 정본화 단계로 진입하게 됩니다.

신오위장본(申五衛將本)은 국문학자 가람 이병기(李秉岐, 1891~1968) 선생이 필사한 자료로 가람본(嘉藍本)이라고도 합니다. 판소리 사설이 근대 국문학 연구의 공식 학술 대상으로 포착되는 결정적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오위장'은 고종(高宗, 1863~1907) 임금이 신재효에게 하사한 관직명으로 고창의 향리였던 신재효는 판소리의 후원자, 교육자, 작가, 이론가 등으로 활약했습니다.

신오위장본은 6책으로 1932년부터 1957년까지 필사한 최초의 신재효 문학 전집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동리 신재효 사설의 필사본 수집과 연구는 제자인 강한영, 김삼불 등에게로 이어져 심화되었습니다.

새터본은 국문학자 새터 강한영(姜漢永, 1913~2009) 선생이 성두본과 신씨가정본 등 기존 이본들을 대조 · 교주하며 직접 베껴 쓴 3차 필사본입니다. 1969년 『신재효 판소리 전집』 간행으로 현대 판소리 사설 연구 및 정본화의 핵심 토대가 된 학술 자료입니다.



동경본 영동, 김삼불본 신재효 판소리 사설

김삼불본은 월북한 국문학자 김삼불(金三不, 1920~?) 선생이 고창 지역에 전해져 내려온 신재효 판소리 사설 필사본을 바탕으로 교주 · 정리한 자료로, 신재효 연구와 판소리 문학사의 기준이 되는 중요 자료입니다.

판소리 사설 집성과 현대적 표준화,
『신재효 판소리 사설 영인본』·『신재효 판소리 사설 교주본』

고창 신재효판소리박물관은 흩어진 사설본들을 종합적으로 조사 · 연구하여 정밀한 영인본과 교주본을 발간했습니다. 이는 과거의 기록유산을 현대적 연구 자산으로 확립하고, 일반 대중과 연구자 모두에게 정확한 판소리 사설을 제공하는 정본화의 최종 결실입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여섯바탕의 사설 영인본을 발간하였고, 2023년에는 단가 · 가사 · 한시의 영인교주본을 발간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여섯바탕의 사설 교주본을 발간하였습니다.

신씨가장본,성두본,와촌본 등 주요 사설본들을 종합 집성한 현대 학술 성과물로 영인본은 원본의 서체, 판형, 필사 흔적을 있는 그대로 아카이빙하여 서지학적 원형 가치를 극대화했습니다. 교주본은 각 이본 간의 차이점을 정밀 비교 분석하고 어휘와 구절에 상세한 주석을 더하고 현대인들도 판소리 사설의 문학적 · 음악적 깊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기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창 지역의 신재효 판소리 사설본인 신씨가장본(5점), 성두본(8점), 청계본(12점), 와촌본(2점)은 총 27점으로 2022년 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마당별로는 춘향가 5점, 심청가 3점, 토별가 3점, 박타령 5점, 적벽가 4점, 변강쇠가 3점, 가사 4점이 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 지정서(2022년)



고창 신재효판소리박물관 발간, 신재효 판소리 사설본 영인본과 단가·가사·한시 영인·교주본



고창 신재효판소리박물관 발간, 신재효 판소리 사설본 여섯바탕 교주본

신재효 판소리, 종합 예술이 되다

동리 신재효(申在孝, 1812~1884)는 판소리 사설본 정리를 통해 산발적으로 전해지던 판소리 여섯 바탕을 정립하여 판소리의 서사 구조를 완성했을 뿐만 아니라, 소리꾼 교육과 연출을 겸하며 조선 후기 민중 예술이었던 판소리를 당대 최고 수준의 종합 예술로 끌어올렸습니다.

신재효의 판소리 사설은 김창환, 김소희, 김연수 등의 근현대 명창들의 사설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임방울의 출세작이자 근대 판소리 음반의 대표적 작품인 <쑥대머리>의 사설은 <춘향가 남창>에서 나왔습니다. 또 소설로 출판된 완판 <토별가> 역시 신재효의 <토별가>가 그 저본입니다. 영화 <도리화가>의 원천도 신재효의 가사 <도리화가>입니다.



청계본 <오섬가> 광대가



청계본 <오섬가> 도리화가



청계본 <심청가> 안씨 옹고집전

사설본별 서지 특성 비교

사설본명	주요 성격 및 전승 주체	서지학적·학술적 가치
신씨가장본	신재효 가문 소장·전승본	최상의 정통성과 권위를 지닌 원천 기준본
성두본	성두리 유종석 필사·전승본	사설 원형 보유, 최고본(最古本)의 가치
청계본	청계동 박경림 필사·전승본	실창 위주 구어체 변용 및 현장성 반영
와촌본	와촌리 정재술 필사·전승본	지역적 특색 및 판소리의 민중적 수용 입증
신오위장본	가람 이병기 필사본	판소리 사설의 근대 국문학적 발굴
새터본	새터 강한영 필사본	사설 대조 연구 및 전집 간행의 직접적 토대
김삼불본	국문학자 김삼불 영인본	판소리계 고소설 발간 및 신재효와 광대가 연구
신재효판소리 박물관 발간 영인본·교주본	박물관 발간 현대 학술 자료	사설본의 종합 집성 및 현대적 표준화

춘향가



성두본(A) <춘향가> 1898년(戊戌)



성두본(B) <春香歌> 1907년(丁未)



정계본 <春香歌 男唱> 1907년(丁未)



정계본 <春香歌 童唱> 1908년(戊申)



정계본 <春香傳 男唱> 1930년(庚午)

심청가



신씨가장본 <沈清歌> 1904년(甲辰)



정계본 <沈清歌> 1906년(丙午)



정계본 <沈清歌> 1912년(壬子)

퇴별가



신씨가장본 <퇴별가> 1904년(甲辰)



성두본(B) <兎鼈歌> 1907년경



정계본 <兎鼈歌> 1908년(戊申)

박타령




성두본(A) <박가라> 1903년(癸卯)



신씨가장본 <박타령> 1904년경



청계본 <朴打鈴> 1910년(庚戌)



와촌본 <朴興富傳> 1914년(甲寅)



성두본(B) <朴興甫歌> 1918년(戊午)

적벽가



성두본(A) <적벽가> 1904년(甲辰)



성두본(B) <赤壁歌> 1918년경



신씨가장본 <赤壁歌> 1904년경



청계본 <赤壁歌> 1926년(丙寅)

변강쇠가



청계본 <橫負歌> 1915년(乙卯)



성두본(B) <변강쇠歌> 1918년경



와촌본 <변강쇠전> 1915년(乙卯)

단가·가사



신씨가장본 <成造歌 漁父辭 虛頭歌 合附> 1904년경



청계본 <虛頭歌> 1909년(己酉)



청계본 <烏鵲歌> 1911년(辛亥)



청계본 <成造歌> 1911년(辛亥)

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 <신재효 판소리 사설본> 목록

	서 명	계 통	연 대	장 수	크 기(cm)	소 장
1	춘향가	성두본(A)	1898(戊戌)	30	22.0×26.3	유희엽
2	춘香歌(춘향가)	성두본(B)	1907(丁未)	43	14.0×22.5	유희엽
3	춘香歌 男唱(춘향가 남창)	청계본	1907(丁未)	53	17.2×21.0	박종욱
4	춘香歌 童唱(춘향가 동창)	청계본	1908(戊申)	32	17.4×21.0	박종욱
5	춘香傳 男唱(춘향전 남창)	청계본	1930(庚午)	낙장본	16.7×24.1	박종욱
6	沈晴歌(심청가)	신씨가장본	1904(甲辰)	56	17.0×27.0	판소리박물관
7	沈晴歌(심청가)	청계본	1906(丙午)	49	18.5×21.0	박종욱
8	沈晴歌(심청가)	청계본	1912(壬子)	35	18.7×22.2	박종욱
9	퇴별가	신씨가장본	1904년경	42	17.0×27.0	판소리박물관
10	兎鱉歌(토별가)	성두본(B)	1907년경	33	14.5×23.0	판소리박물관
11	兎鱉歌(토별가)	청계본	1908(戊申)	39	17.0×21.0	박종욱
12	박가라	성두본(A)	1903(癸卯)	46	19.5×25.0	유희엽
13	박타령	신씨가장본	1904년경	74	16.8×26.3	판소리박물관
14	朴打鈴(박타령)	청계본	1910(庚戌)	70	16.0×20.4	박종욱
15	朴興富傳(박흥부전)	외촌본	1914(甲寅)	40	17.2×27.0	고창문화원
16	朴興甫歌(박흥보가)	성두본(B)	1918(戊午)	61	12.3×21.3	판소리박물관
17	적벽가	성두본(A)	1904(甲辰)	31	17.0×25.0	유희엽
18	赤壁歌(적벽가)	신씨가장본	1904년경	51	17.0×26.7	판소리박물관
19	赤壁歌(적벽가)	성두본(B)	1918년경	40	12.0×21.0	판소리박물관
20	赤壁歌(적벽가)	청계본	1926(丙寅)	37	20.0×25.0	박종욱
21	橫負歌(횡부가)	청계본	1915(乙卯)	51	16.2×19.4	박종욱
22	변강쇠전	외촌본	1915(乙卯)	23	21.0×24.5	고창문화원
23	변강쇠歌	성두본(B)	1918년경	46	12.5×20.6	판소리박물관
24	成造歌, 漁父辭, 虛頭歌 合附 (성조가, 어부사, 허두가 합부)	신씨가장본	1904년경	31	17.0×26.7	판소리박물관
25	虛頭歌(허두가)	청계본	1909(己酉)	21	17.5×20.9	박종욱
26	成造歌(성조가)	청계본	1911(辛亥)	17	18.2×12.3	박종욱
27	烏鵲歌(오설가)	청계본	1911(辛亥)	29	17.5×22.5	박종욱

신재효 판소리 사설본의 전승 및 학술적 집성 계보

[조감장 1 & 2] 가문과 원형 : 가문이 지켜낸 전통의 맥(脈)

- 신씨가장본 (5종 5책)
  - 신재효 가문에 대대로 보전되어 온 최고 권위의 원천본
- 성두본 (5종 8책)
  - 사설의 원형을 정교하게 담아낸 필사본

▼

[조감장 3] 지역과 수호 : 터전에 뿌리내린 기록 (지역의 수용과 변용)

- 청계본 (9종 12책)
- 와촌본 (2종 2책)

향촌 지식인과 지역민들에 의해 전승 및 구어체 변용

▼

[조감장 4] 학인의 애호 : 학문으로 안아 올리다 (근대 학술 수집·등서)

- 신오위장본 (가람본) – 가람 이병기 수집
- 새터본 – 새터 강한영 등서 · 교주
- 김삼불본 – 김삼불 수집 · 교주

*근대 학술적 연구 · 수집 및 정본화를 위해 이본을 대조 · 등서

▼

[조감장 5] 가치와 전승 : 지정 유산의 위상과 미래 (현대적 정본화와 연구)

- 영인본 & 교주본
  - 박물관 발간, 사설본 영인 · 교주 및 현대적 정본화와 학술적 집성 완성

발 행 일 2026년 10월 15일
발 행 처 고창 신재효판소리박물관

총괄기획 김숙희(고창 신재효판소리박물관 학예연구사)
유물관리 정재훈(고창 신재효판소리박물관 학예연구사)
디 자 인 브니엘하우스

표지
성두본 <춘향가(1898)> 가장 이른 시기의 신재효 판소리 사설본

고창 신재효판소리박물관

관람 안내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고창읍 동리로 100

관람시간 : 하절기(3월~10월) 09:00 ~ 18:00

동절기(11월~2월) 09:00 ~ 17:00